

社會倫理學者와의 대화

지난 10월 10일, H.E. 「뫼트」(Tödt) 교수와 단들이 약 세시간동안 얘기를 나눴다. 이분은 현재 독일 하이델베그大學 神學部의 사회윤리학 교수로 있다. 그는 신약신학으로 출발했는데 그의 학위논문은 「공관서 전승에서 본 人子」가 그를 일약 세계에 알리게 했다. 그는 「하이델베그」大學에서 나와 같은 지도교수인 「귄터 브른캄」 밑에서 학위를 한 것 등으로 서로 격 반가웠다. 그는 일본에 약 2개월 머물면서 神學的인 立場에서 社會問題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는 중이라고 하며 한국에 먼저 들린 것은 어떤 아시아通이 日本에 먼저 들리면 한국像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人이 보는 日本을 먼저 참작하고 日本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忠告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눈을 가진 外國人도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다. 그는 이번 旅行이 배우기 위한 것이니 듣기만 할 작정이라고 전제하면서 韓國의 神學的 상황과 그리고 어떤 固有한 立場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神學界와 그리고 그 정황에 대해서 대충 소개하고 한국의 고유한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두말이 할 말이 없었고 단지 이제부터의 과제로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에게 대충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受勢的으로 西歐神學을 소화하는데 바빴다. 그리고 좀더 나가서는 西歐的인 입장에서 우리의 傳統的 사고나 삶을 물었으며 批判해 왔다. 이것은 神學만이 아니고 學問 전반의 경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反省期다. 그런데 固有한 立場을 강조하면 民族主義的인 傾向성에 휘말려 들어가기 쉽다. 소위 韓國的이라는 말은 그런 뜻에서 위험한 말이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물음」의 「이니시아티브」를 무엇이 가지느냐에 있는 것으로 안다. 西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면 그것에 물음의 이니시아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물음을 우리의 선 자리에서 제기하면 그 대답이 달라질 것으로 안다. 가령 지금까지는 西歐的인 기독교의 입장에서 東洋의 倫理나 또는 종교에 물음을 던지는 태세였다. 그러나 神學者이면서 가령 佛教나 儒敎의 立場에서 基督教에 質問하는 方向으로 옮긴다면 어떨까? 아마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런 입장에서 西歐와 다른 대답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신약을 하는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성서의 非神話化를 뒤이어 우리는 非유형化에로의 勞力이 시급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단계에서 있지 않다고 본다. 아직도 우리는 西歐神學에 대한 소화와 精確한 判斷을 위해서 努力해야 할 때로

본다. 그러므로써 비로소 非西歐化라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 나는 성서의 입장에서 (그러나 西歐의인 눈으로 본) 儒敎를 보고 批判하는 논문을 썼다. 그 나래 그 입장을 겨우로 가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 당신은 이런 충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서 그는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할 뿐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신약신학자로 출발했는데 지금 社會問題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당신의 연구 태도는 어떤가? 성서를 추구하므로써 그것에서 물음을 얻어 社會現實 문제로 向하는가? 또는 社會問題에서 물음을 갖고 성서으로 向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그는 물체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신약 신학의 결론을 거부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볼트만」을 평가 해서 : 그는 성서와 우리 時代와의 2千年의 간격에서 이루어진 답을. 무너뜨리므로써 성서를 우리의 實存과 마주 서게 한 不朽의 공로가 있으며 신약 신학자로서 그는 지금도 여전히 첨단에서 있다. 그러나 볼트만은 성서를 실존에 까지 끌고와 마주 세웠을뿐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학자로서의 사회윤리학은 그 다음의 길을 개척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볼트만」에 의해서 얻은 결론을 끌고 사회문제로 向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물음이나 대답이 너무 좁아진다(zueng).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로 두고 사회문제를 밝혀서 그 면에서 그가 밝혀 놓은 것에 向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러한 얘기 끝에 그러면 「판넬크」나 「볼트만」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저들은 신학적인 전통에서 발전해서 歷史적으로 向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써 성서신학적인 결과를 왜곡하는 무리를 하는 한편 구체적인 문제로 틀고 들어가지 못한다. 가령 「볼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굉장한 인기를 일으켰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음의 길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다음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의 神學的 思考의 構造上 더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서 가령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에서 보는 태도는 높이 사야 하는 試圖라고 보나 성서학에 있어서 너무나 유치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몇 불어서 볼트만의 신약신학의 결론을 받아서 현대 사상계와의 關係에서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에펠링」도 결국 학생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튀빙겐」에서 다시 「슈리히」로 돌아가서 지금은 연구 교수로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신학의 대변자랄까, 전위에 누가 서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難色을 나타냈을 따름이었다.

우리 대화는 흘러서 그는 다시 한국에 고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글세요!..... 고유한지는 몰라도, 사마니즘이라는 것이 굉장한 역할을 한달가?」라는 애매한 말을 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그의 질문에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무엇이냐 無形으로 침범해서

그것을 變形 또는 變質시키는 威力을 가진 것으로서 흡사 예수 時代 전후의 지중해 지역의 gnostismus의 양상과 역할을 한다고 할가요! 라는 막연한 대답을 했다.

이럭저럭 시간이 되어 Dr. Bredenstein 덕에서 배론 접시를 나누고 하이델헨크의 親知들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헤어졌다.

오면서 생각한 것은 西歐人은 남을 배워준다는 입장에서 밖으로 나가든 것이 어제 같은 데 이제는 배우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西歐人도 自給自足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증거이며 동시에 오늘의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도 아니며 따라서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이 홀로 대답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興土團의 金曜講座

지난 24日 興土團이 主權하는 金曜강좌에서 「전통과 저항」이라는 강연을 했다. 언제가든 한번 이 모임에서 강연하게 될 경험이 있는데 그 모여든 청중이 數로나 듣는 분위기로 보나 색다른 모임이다. 벌써 이 강좌만도 600여회의 연문을 쌓았다고 한다. 강연이 비록 대중적이기는 하나 종교적인 신념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趣味的인 모임도 아니다. 興土團 성격이 그렇듯이 民族의 未來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에게는 진부한 것인데 이 만큼 관심을 가지는 청중이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하게 했다. 들전대 이 興土團

은 各處의 學院에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조직했는데 벌써 2千名 가까운 學生會員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운동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은 무엇에 끌릴까? 興土團은 安島山先生이 50餘年전에 창설했다고 한다. 그후 그분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지켜오는 一代가 70이 넘는 人士들이라고 한다. 日帝時에 폐쇄당한 일이 있고 李承晩政權 때 탄압 받았고 5·16에 행동 중지 당한 일이 있으나 꾸준히 가꾸워 왔단다. 그러나 日帝末과 李政權때의 탄압으로 오늘날의 中堅이 될 수 있는 4, 50代를 별로 흡수 못하므로 그대로 시들어 버리는가 했더니 지금 20代의 젊은이들이 호응하고 나서므로써 中興期에 있는 모양이다. 나는 강연 후 그 모임에 중요 역할을 하는 안병욱 교수와 또 단원이 된 李箕永 교수와 함께 몇시간 얘기를 나누었는데 무엇이 젊은이들을 끄는지는 석연치 않았다. 安島山는 확실히 近代에 한국이 낳은 특유한 人物임에는 틀림없다. 그는 우남 같이 권모 술수의 능이 있고 카리스마적으로 군림하려는 政客도 아니었고 白凡같은 鐵人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曹탄식 같이 엠소트를 많이 남기는 奇人的인 志士도 아니었고 金九식 같은 學者型도 아니었다. 그는 民族운동을 위한 政治무대에 서는 때도 있었으나 앞장 서서 그 손에 權力을 쥔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제나 쉽게 후퇴한 것으로 보면 나약했던 것 같은 인상이고 그의 한 말을 보면 심오한 것도 아니다. 務實 力行 忠義 勇敢으로 이 團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그 말 자체로는 혼해 빠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그처럼 힘이 있는 것은 삶과 유리된 思辨이 아니고 삶과 직결됨에 있었던 것 같다. 島山 自身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랬기에 그의 말이 힘이 있나 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英雄의 心理로 요행을 바라거나 또는 어떤 非常한 手段이나 폭력같은 것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이 民族의 實力을 길러야만 된다는 긴 眼目으로 참 人間 그러므로써 참 한국 民族의 性格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當時의 소위 志士들의 자세와 비교해 보면 특출하게 보인다.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近代的인 思考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 個人 플레이를 할려고도 하지 않고 居士의인 人間이 되기를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組織을 가져야 된다는 그 着眼과 또 실제 그 조직한 솜씨는 확실히 近代的이다. 사상에서 보면 반드시 그이만한 사람이 없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이들은 그의 생과 더불어 그 저 옛 기억의 대상으로 남을 뿐 사실상 지취를 감추었는데 島山의 뜻은 오늘에 와서 구체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역시 그의 組織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島山 自身을 評價할만한 지식이 없어서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興士團이라는 모임이 그냥 살아서 그의 정신을 中心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은 참 높이 사고 싶다. 세계 여러 민족의 상징감이 된 人物들의 사상을 보면 밖에서 듣기보다는 그 內容이 대단한게 아니다. 더 중

요한 것은 그 한 人物의 사상을 後進들이 지키고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므로써 그들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했을 뿐 아니라 그러면서 저들은 求心力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벤마크」를 개역한 「그룬트비히」같은 이의 한 말은 정말 상식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求心力이 될 수 있는 것과 또 그를 떠받든 「벤마크」의 마음이 함께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는 강연하러 갔다가 그 분위기를 보고 호뭇한 마음과 더불어 생각할 과제를 갖고 돌아왔다.

그리스도는 宇宙人?

(성서 해석의 문제)

西獨에서 늦게 도착한 신문들(Die zeit) 읽다가 苦笑을 금할 수 없는 記事를 보았다: 소련의 한 大學講師(Sajzew)가 그리스도는 보다 文化水準이 높은 他星에서 온 宇宙人이라는 主張을 論文으로 발표해서 물의를 이트렸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퍼 넓은 파문을 던진 증거로는 大學에서 추방당할 뿐 아니라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Iswestija)가 그의 주장에 대응해서 반 그리스도교 선전을 펴야 했다는 사실이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보다 높은 文化를 이룬 他星에서 벌써 오랫동안 地球上의 발전을 관찰해 오다가 이 人間이라는 種族이 그 文化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어떤 성분의 것이며 이 人種中에 어느 民族이 가장 優越한지를 탐구할 사명을 지녀서 보낸 것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의 主張은 성서로

뒷받침하고 있다. 가령 예수가 “내 나라는 이 세대가 아니다”라는 말은 他界에서 왔다는 증거이며 그가 세상에 올 때 東方의 賢人들이 별을 보았다는 것은 宇宙船을 타고 온 증거이며 그가 復活한 것은 다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버린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성서의 기사들을 宇宙時代像으로 合理化한다. 그 다음의 內的인 증거로서는, 그의 설교는 當時 地球上의 奴隸制度的 風土에서는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완용하고 자비한 것이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쯤되면 苦笑할 금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것은 宇宙時代人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풀이하려는 많은 試圖中에 하나다.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觀心이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집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는 分明히 人間歷史上에 나타나는 異質의인 出顯이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그는 종교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非宗教化 내지 非神話化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재인식해야겠다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더注目되는 것은 그가 거이 豫言者的 정열로 여러 모양의 박해를 무릅쓰면서 地方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가진다고 하며 소비에트 民衆이 그에게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이것은 밖으로 부러의 탄압에서 外的으로는 절단된 저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이 內的으로 간직되어 신음하면서 한 돌출구를

찾으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大學講師의 성서관이다. 그의 성서 이해는 적어도 200年 이전에 머물고 있다. 즉 그의 성서 文字主義가 그를 이러한 喜·悲劇의인 신념에 빠지게 한 것이다. 그의 성서 文字主義가 合理主義(科學主義?)와 野合하므로 反理性的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他界에서 온 宇宙人이었다는 상상은 반드시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주개발의 初步에 있는 오늘날 그 상상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런 상상을 성서로서 뒷받침 하므로 신념화하는 것이 한심한 것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텍크노로지에 놀랜 기독교 해석자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나? 그런데 이 사람에게 논쟁을 펼 소련의 반 그리스도 주장도 가관이다. 저들의 그리스도 비판은 성서에 무식한 「레닌」의 주장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모든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한다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은 도구마적이다. Isvestija紙는 우선 그리스도의 비판으로써 가진자는 더 밟게 되고 가지지 못한자는 뺏기게 되리라는 말을 들어 이것을 계급 투쟁의 입장에서 비판하면서 「베트남 民族에 맞선 침략적인 미국주의에 가담한 數百의 목사들」과 같은 착취자의 소리라고 한다. 그러므로써 그리스도는 착취자의 앞잡이 역할을 한, 한 수염을 기른 설교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소위 「주의」(ism)라는 것은 무서운 眼疾을 가져온다. 저들은 이런 구절을 보고, 것처럼 해석할 눈은 가졌어도 예수가 오

히려 가난한 자, 버림 받은 자의 편에 있다는 무수한 기록은 볼 수 없었다. 얼마나 科學을 말하는 非科學인 독단인가? 한 「수업을 기른 설교자」라고 하나 그가 수업을 길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적 무신론”을 방패로 하는 모양이다. 저들은 특히 영국 「로빈슨」 감독의 “神에게 솔직이”를 인용하면서 저들의 재래적인 無神論을 재확인한 모양이다. 하기는 이러한 맹목적인 그리스도 비판은 소위 과학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렛셀」의 그리스도교 비판을 보면 사실상 中世紀의 기독교에 겨누고 있다. 저들은 잘못된 기독교사의 일면과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류할 줄 모른다. 나는 렛셀의 글을 읽다가 숨바꼭질하는 어린이들의 말투가 생각났다: “용 용 죽겠지 난 여기 있는데”

과거에는 기독교가 그 입장에서 세계를 一元化하려고 하므로써 산 人間에게 주어진 산 물음과 대답의 성격을 가진 성서를 「부르도자」와 같은 기계적인 도구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失敗했는데 오늘날은 科學主義가 모든것을 그 立場에서 一元化해버리므로써 다시 세계를 기계화 할려고 하고 同時に 人間 소의 비극을 가져 오고 있다. 과거의 기독교를 종교 제국주의라고 비난한다면 오늘날에는 科學제국주의가 등장했다. 이 科學主義는 모든것을 客觀化하므로써 산 것을 죽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메칼트를 정점으로 하는 近代哲學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있다」는 公式으

로 主體를 客體에서 고립시켜 버리느니 오늘날의 科學主義는 客體를 主體에서 떼내므로써 고립시켜 버리고 만다. 성서 문자주의가 사망, 인격, 하나님을 말하는 성서를 도구화 하므로써 그 산 내용을 해소 시켜버리느니 오늘날의 科學主義도 성서에 대해서 꼭같은 犯罪를 감행하고 있다. 문제는 一元化主義를 극복하는 일이다. 성서에서 科學자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一元化主義이며 科學에서 성서에 침범하는 것도 一元化主義다. 科學은 사탕이나 人格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曰可曰否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 科學의 자기 부정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휴머니즘의 限界

—金恩國씨의 순교자를 읽고—

벌써 부터 읽을려고 하는 김은국씨의 순교자를 최근에야 읽었다. 그 소설이 독어로 번역된 것을 읽고 몹시 감격한 편지를 보낸 독일의 한 친구에게 자극받고 곧 다른일을 제쳐 놓고 읽었다. 한국 사람에게 이만한 作品이 나온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 구상이나 사상이 빈틈 없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6·25의 민족적 비극을 겪은 한국 사람으로 절절한 물음을 던진 것이다. 그는 이 戰爭의 참상을 不條理로서 성격화 한다. 따라서 “攝理하는 하나님”이란 없다는 전제를 가진다. 신복사는 하나님은 없음을 절감한다. 그러면 사람은 이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삶의 의욕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욕과 용기는 어디서 오나? 그것은 희망을 안겨줄 때만 가능하다. 그

런데 이러한 不條理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나? 그는 대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그것은 곧 絶望만을 가져올 따름인 것을 본다. 이것은 잔, 파울이나 니체가 無神宣言과 함께 따른 虛無混亂에 직면한 것과 같다. 신복사는 희망을 안겨줄 길은 하나님을 내세우는 길외에 다른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서 그는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는 宣言과는 달리 「하나님은 살아 있다」는 거짓 證言者로 문갑한다. 그의 거짓은 사랑의 표현의 不可避한 도구가 된 것이다. 그는 수난을 당하면서도 거짓으로 일관한다.

이 作者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휴머니즘이다. 거짓말 하면서도 人間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겠다는 그 거짓 위에 세워진 誠實함은 거짓을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의 通路로 변하게 한다. 그는 거짓 중언이라는 점에서 僞善者다. 그러나 그의 人間愛가 이 僞善者를 「聖人」으로 문갑하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러한 「聖人」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 聖인도 도대체 거짓과 誠實이라는 모순을 세운다. 처음부터 否定된 誠實 위에 발을 디딘다. 그의 이 휴머니즘이 그의 거짓마저 정당화할 연속선을 갖었는가? 결국 이 신복사도 不條理 아닌가? 또 이러한 「聖人」의 實在을 열원하는 것이 人間의 리할리티에서 볼 때 가능한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니체의 超人처럼 人間 아닌 人間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그런 超人의 實在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어려움에 있어서 무슨 差異가 있을 것인가? 人間에게 그만한 超人인 휴머니티가 있다면 세상에 비극부터 일어날 리 없으며 絶望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6·25도 안 일어났을 것이다.

作者도 이 사실을 안 모양이다. 그러기에 人間 신복사는 이 모순 속에서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때 신 죽은 그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으로 끝마침으로써 지금의 人間 신복사로서는 한계가 있고 죽었다가 새롭게 탄생되는 신복사에게 기대를 걸게 한다. 이러한 서술법은 아마도 예수의 復活 설화에서 얻어왔으리라: 人間 예수는 거짓이 아니라 誠實한 信念 위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부르짖었다. 그는 不條理 속에서 신음하는 人間에게 오고 있는 未來(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프르써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죽어야만 했다. 그것은 人間性의 限界를 말한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탄생하게 했다. 그 믿음 위에서 그의 「휴머니즘」이 가능했든 것이다.

문제는 철저한 휴머니즘이 信仰(하나님) 없이 가능하나 하는 것이다. 편 말로 하면 人間の 능력과 그의 존엄성에 거절을 둔 휴머니즘의 수명이 얼마나 길 수 있는나 하는 것이다. 이 作者가 부활한 신복사를 말하는 것은 그런 휴머니즘의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신은 죽었다」는 소리는 결코 악마의

소리거나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
고는 보지 않는다. 아! 오히려 人間
의 한계성을 실감한 부르짖음이다. 그러
나 無神論에서 反神論 마침내는 殺人論
에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것은 神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고 새로운 神을 낳게 하는 질타
기 역활 이상 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神은 더 무
서운 不條理의 神이 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

×

×

지난번 어떤 중파에 속한 한 가족이
자지들의 신앙이 옳다는 것은 증거하기
위해서 毒藥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신
문을 통해 알려지므로써 파문을 던진 일
이 있다. 저들은 설교를 통한 그들의 지
도자의 주장을 믿고 안죽을 것으로 알
고 飲毒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죽었다.
저들의 信念대로 하면 저들의 信仰이 틀
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틀렸거나 둘 중
의 하나가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 이 일
이 있는 후 여러차례 여러 학생들로부터
저들의 信仰태도가 옳지 않느냐, 또는
성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기에 그대로 했
는데 무엇이 나쁘냐 하는 질문을 받았다.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찰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수사한 결과 그저 성경
에 있는대로 설교했을 뿐이라고 해서 그
대로 석방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그가 自
殺으로 유혹하려는 殺人의 意圖가 있었
을 리 없으니 法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
러나 단순한 宗教心을 가진 사람에게 만
일 信仰이 강하면 독을 먹어도 죽지 않

는다. 먹어 봐라,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
를! 이런 식으로 강조했다면 그것은 악
마의 소리와 다를 바 없다.

마태복음에 예수를 시험하는 기사가
있다. 그런데 두번째 유혹에서 예수를 성
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므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시편 11—
12을 내대는 것이다. 그 구절은 “너를
불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
다”로써 거기에는 떨어지라는 말도 없거
니와 또 위에서 내리 떨어질 때 받드려
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말
도 아니라 단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
다고 했다. 그런데 유혹은 이 돌에 부딪
히지 않는다는 말은 고정해 놓고 그를
높은데서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응수 한다.
정말 두 말씀이 다 구약에 있다. 유혹의
소리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는 것을 文字의으로 이해해서 고정시키
고 그것을 권위(미끼)로 유혹의 도구로
하려는데 대해 그것에 대한 응수는 그성
서의 구절과 상관되어 보이는 구절을 내
세우므로써 「네 말이 옳다손 치더라도 이
다른 말씀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 셈이
다. 그런데 이 응수에 중요한 사실은 하
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시편의 말씀의
中心은 여호와가 어떤 위기에서도 보호
할 것이니 무서워 말라는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이것을 역용해서 그것을 자기
의 권리로 만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어야만 된다」에서 「그대로 실행하는지

해보자」는 시험으로 유혹한 것이다. 마가복음에 (16, 18) 「뱀을 쥐거나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가되지 않겠고」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나 뱀을 잡하라고 독을 먹어 보라 그것으로 네 신앙이 증명된다」고 한다면 위와 꼭 같은 악마의 유혹에 휘말려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런 악마적인 유혹을 한다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라고 응수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간 이미 자기에 형성된 고정(心념)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서를 부분적으로, 그것도 文字主義의으로 내대는 따위의 행위가 많은 것은 딱한 일이다. 가령 공중에 나는 새도 가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하는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일 안해도 먹게 되나 보자해서 요행을 향해 눈감고 임벌리는 사람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할 책임을 버릴 뿐 아니라 나가서는 일부러 자기를 위험한 고비에 놓고 하나님의 攝理를 시험해 보는 그런 따위의 신앙의 자세가 삶을 명들게 한다.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성서연구(암송이 아님)를 하며 성서를 분석해서 그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가려내는 일을 신학자들이 한다.

우리는 마가 16장 14—18을 함께 보아서 그 말씀의 中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하겠다. 그러면 누구나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며 그러한 사명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마태 28. 16—20; 누가 24. 36—49과 비교하면 더 확실해 질 것이다(마태, 누가에는 독을 마실지라도라는 말이 없다) 다시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을 위해서 능력이 주어졌으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가지 표현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이 구절을 강조하는 그 설교자도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기에 그 구절을 강조하면서도 자기는 飲毒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성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않느냐? 그러니 하고 자신만만히 文字主義를 요구하는자들은 실은 꼭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비판할 때만 휘두르는 칼로서 성서를 이용할 뿐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文字主義가 아니다. 성서의 일점일획도 다 지켜야 한다면서 구약의 대부분의 율법은 안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따위의 말씀은 위반해도 가만 있다. 아마 이런 요구는 성서에 있어도 그것은 바울의 時代의인 것의 반영으로 상대화 해버려도 좋다는 결론에서 그럴 것이다. 이처럼 자기에게 기정 사실이 된 것에는 성서의 이해가 해석적인데 남에게는 왜 律法的으로 문갑해 버릴까? 저들은 信仰 때문에 良心이 문해졌나?

하여간 그 한 食口の 집단死는 무엇보다 한국의 성서-문자주의의 祭物로 받쳐진 것이다.

편 집 후 기

어느 때나 아낌 없는 조언과 협력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의 의미 그대로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 52 —